

↓ 코스피	↑ 코스닥
2409.22	827.69
(-5.74)	(+3.58)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3.220	1301.50
(+0.060)	(+7.20)



힌남노 씻어낸 '135일의 기적' (제11호 태풍) 직원도 철강도 더 단단해 졌다

르포
침수피해 극복, 포스코 포항제철소

태풍에 냉천 범람으로 공장 침수 밀려들어온 물만 620만톤 달해 바닷물과 빨·모래도 흘러들어 물 퍼내는데만 한 달 가량 소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35일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해 물에 잠겼던 아픔은 완벽하게 지우고 완전 재가동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 지하를 방문할 당시 코를 찌르는 물비린내와 기름 냄새 등 특유의 악취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1000도가 넘는 쇠물을 뽑아내는 출선 작업과 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직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포항제철소가 이처럼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민·관·군을 포함한 140만명의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포스코는 성공적인 침수 피해 극복을 통해 얻어진 더욱 단단해진 철강 본원 경쟁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 체제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

◆140만명이 이뤄낸 135일의 기적

태풍 힌남노 피해로 공장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가 완벽하게 가동된 건 지난 1월 20일이다. 냉천 범람으로 침수된 공장을 마주했던 직원들은 135일간의 복구 과정을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주한 포항제철소 제강부 2제강공장 공장장은 "포항제철소가 침수된 당일 아침은 재난영화의 시작처럼 매우 평온했다. 포항도 여명이 밝아올거라 생각하는 아침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공장 곳곳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공장이 침수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제철소로 밀려 들어온 물은 620만톤에 달했다.

임직원, 민·관·군 140만명 투입 직원 세대간 벽 허물고 소통 기회 협력사와 묵은 오해도 많이 해소 정상가동 후 전우에 같은 것 생겨

포항제철소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공장은 2열연공장이다. 유압류 공급 장치가 있는 지하 8m 높이의 이곳은 길이 420m, 폭 12m의 공간이 삽시간에 물로 채워졌다. 가장 큰 문제는 바닷물과 함께 밀려 들어온 빨과 모래는 기계 속으로 들어가 피해는 갈수록 수습을 정도로 확산됐다. 당시 공장에 밀려온 물을 퍼내는데

만 한 달 가량 소요됐을 정도다.

2열연공장이 재가동 된건 약 100일의 시간이 흐른다. 이현철 열연부 2열연공장 파트장은 "공장이 복구된 지 99일째가 됐는데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첫날 압연이 무사히 끝난 걸 보면서 너무 기뻐 만세를 불르고 하루종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포항제철소가 공장 가동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지만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과 민·관·군의 지원 덕분이다.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원은 140만명을 넘어섰으며 단 한 건의 중대 재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했다. 또 냉천 범람 직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4만3000개에 달하는 모터를 빠르게 복구해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모래와 빨이 모터속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135일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은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의도 면적 세배에 달하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면 다른 부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며 같은 팀원이라도 교대 근무를 하면 서로 대면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이 힌남노 침수 피해 복구 이후 정상가동하고 있다. (아래)스마트 고로인 포항제철소 제 2고로에서 쇠물이 나오고 있다.

정성준 선재부 3선재공장은 "포항제철소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복구작업을 하면서 서로 묵었던 오해도 많이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 같다"며 "정상가동 후 직원들과 소통이 더 잘 되고 있고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전우에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2고로에서는 빨간 용선이 끊고 있었고 정리진 루트를 따라 쇠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美 IRA 세부지침 앞두고 북미 투자 늘리는 K-배터리

美 백악관, 대미투자사례 8건 소개
LG엔솔, 애리조나주 공장 재추진
7.2조 들여 최대 독립형 단지 건설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원통형전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세부 지침'이 발표가 임박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IRA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사들의 투자 규모도 지침 발표에 맞춰 더욱 커지고 있다. 북미 배터리 시장을 겨냥하며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세력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IRA에 따라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이 각각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 제조 공장을 확장해 수백개의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 8건을 소개했다. 해당 자료의 이름은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의 미국 투자, 지역 사회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제목의 홍보자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투자와 한화큐셀 투자 사례가 소개됐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약 9개월여간의 재검토 끝에 미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총

7조2000억원을 들여 27GWh(기가와트시) 규모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과 16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앞서 계획했던 투자규모가 1조7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산능력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단독 공장 기준 최대 규모이며, 투자 규모는 국내 배터리 업체 기준 최대이다.

백악관은 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프로젝트가)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미에서 가장 큰 독립형 배터리 단지가 될 수 있다"며 "이 기업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IRA의 연방 세금 공제 덕분에 수요가 부분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투자 규모를 키운 배경에는 이번 주 발표될 IRA 세부지침이 존재한다.

미 재무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백서를 통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세부지침에서도 전기차 조립과 관련해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산 양극재·음극재와 E

U와 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요건들이 세부지침을 통해 인정되고 구체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67% 성장할 예정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작년 대비 25%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온 상태다.

투자가속화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회사와 국내 배터리 회사가 손을 잡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SK온은 포드, 현대차 등과 함께 미국 테네시·켄터키·조지아에서 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SRBM 도발에 "압도적 억제 능력 제고"
▲ 법사위 공방... 여 "국민 호도 우려" v s야 "시행령 바로잡아야" (사진 뉴시스)

▲ 국민의힘 "위증교사의혹까지... '이재명판 더글로리'"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최일수·토론자수 협의 시작
▲ 민주당, 北도발 규탄... "尹정부, 외교 노력해야" (사진 뉴시스)

빛 눈덩이인데... 에너지공기관 임원 외유성 해외출장 적발

산업부 부적절 출장관행재보 접수 두 기관 A·B임원 다수 비위 적발
코로나 거리두기에도 여행지 누벼 해외지사 관계자에 식사비도 전가
상반기 41곳 임원 출장 점검키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십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 두 곳 임원 2명이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엄중하게 시행되던 시기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공공기관들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방만 경영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두 기관 A, B 임원에 대한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A, B 두 임원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기간 중 여러 차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과 가이 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두바이 등 유명도시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각종 관광지를 다녔다.

또,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을 전가하고,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들이 전가한 식사비 등 전가한 출장경비는 각각 310여만원, 25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출장 중 부적절한 비위행위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던 2021년 10월~2022년 4월 중, 2022년 7월~12월 중 이뤄진 것으

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함께 제보를 받은 또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에너지 공공기관 3곳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2곳은 조사를 마치고 한달 이내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의를 벌인다"며 "나머지 1곳은 4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

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2030 청년들 '휴대폰 깡' 급증 소액 마련하려다 수십배 빚더미

내구제대출 근절 정책 토론회

지난해 대포폰 발행현황 5.5만건
내구제대출 이용하는 청년 증가
불법사금융, 파산등으로 이어져
1인당 개통회선 제한 등 대안 논의

있다"며 "다만 취업이 늦어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돌려 막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불법사금융,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30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8년말 38.9%에서 2022년 6월말 42%로 확대됐다. 다중채무자 약 2명 가운데 1명이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10명 중 한 명. 자금마련을 위해 내구제 대출을 알아본 응답자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란 의미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경험이 적고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청년을 중심으로 내구제 대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해규모나 처벌을 위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27일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포 폰이 주로 이러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청 대포폰 발행현황을 보면 2019년 1만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지난해에는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자제가 어려워지면 관련 수법을 활용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구제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대포폰 개통은 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발표한 내구제대출 피해 조사를 살펴보면 내구제대출을 통해 휴대폰을 개설한 대수는 1인당 평균(3년기준) 3.8대로 피해금액은 평균 444만7000원이다.

박 이사장은 "소액을 분할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는 내구제대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저조한 것. 내구제대출의 경우 대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소액자금을 마련하다가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휴대폰 개통회선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은 내구제대출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오는 4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구제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 척결 대상이므로,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내구제 대출을 보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개별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수사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이트나 전화 번호 이용을 금지해 접근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인당 휴대폰이 3회선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개선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더 할수록 더+해지는 더 나은 내일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화상창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현장 공표

한화손해보험

위기를 기회로... '저탄소·스마트 제철소' 구축 속도 낸다

>> 1면 '침수피해 극복 포스코'서 계속

2계작공장에서는 280톤의 용선이 뜨거운 열기와 끓는 소리를 뿜어내며 장입되고 있었다. 용선은 작업을 거쳐 1650도의 용강으로 나오게 된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2열연공장은 완벽하게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2열연공장에서는 약2분 간격으로 새 빨강계 달아오른 대형 슬라브(철강 반제품)가 뜨거운 열기와 굉음을 내며 얇게 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열연 공장은 압연공장의 핵심으로 1개의 무게가 15~37톤인 열연제품을 하루 700개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연간 500만톤에 달하며 현재는 침수 이전 생산량을 회복했다.

하이렉스 시험설비 도입 방침 IoT, AI 등 첨단기술 적용 확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

포스코포항제철소는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공장 외곽에 1.9km 길이의 차수문을 설치 중이며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고 변전소, 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에 차수판과 침수 방지 용벽도 둘렀다.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포스코는 침수의 아픔을 딛고 저탄소, 스마트 제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는데 고로 등 기존 생산방식을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포스코는 '하이렉스(HyREX)' 기반 수소환원제철 상용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파이넥스(FINEX)' 설비를 포스코와 공동으로 설계했던 영국의 플랜트 건설사 '프라이메탈스'와 수소환원제철 엔지니어링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이렉스 시험설비 설계에 착수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인 하이렉스 시험설비를 2026년에 도입해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하이렉스 상용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2050년까지 포항·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 핵심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제선 공정의 경우 AI가 데이터를 학습해 예측 및 관리하는 '스마트 고로'로 변모했다.

또 제강 공정에서는 만들어진 쇳물을 연주 공정을 거쳐 슬라브로 만들기까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2제강공장 주변도로 복구 전(좌) 후(우) 모습.



의 로스 타임을 최소화하고 온도, 성분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멈춤이나 지연 없는 연속 공정을 가능하게 했다. 도금 공정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해 제품의 강종, 두께, 폭, 조업 조건과 목표 도금량을 스스로 학습해 정확히 제어할 수 있도록 도금 기술을 적용했다.

천시열 포스코 공정품질담당 부소장은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 시험설비를 2026년 도입해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상용 기술개발을 완료한 뒤 2050년까지 포항·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육성 및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 포스코그룹은 국내 최대 벤처요람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국내 전(全)주기 선순환 벤처플랫폼 구축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 포항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를 기부해 지역 명소화에 힘을 쏟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등 기업시민 역할 벤처 육성 통해 국가산업 기여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 대응

포스코는 이날 포항에 조성한 스타트업 육성 공간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소개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벤처기업 인큐베이션 센터다. 단순 공간적 개념이 아닌 포스텍(POSTECH·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 2위 규모인 연구시설과 5000여 명의 연구인력, 연간 1조원 규모의 연구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산학연 협력 허브를 벤처 벨리로 확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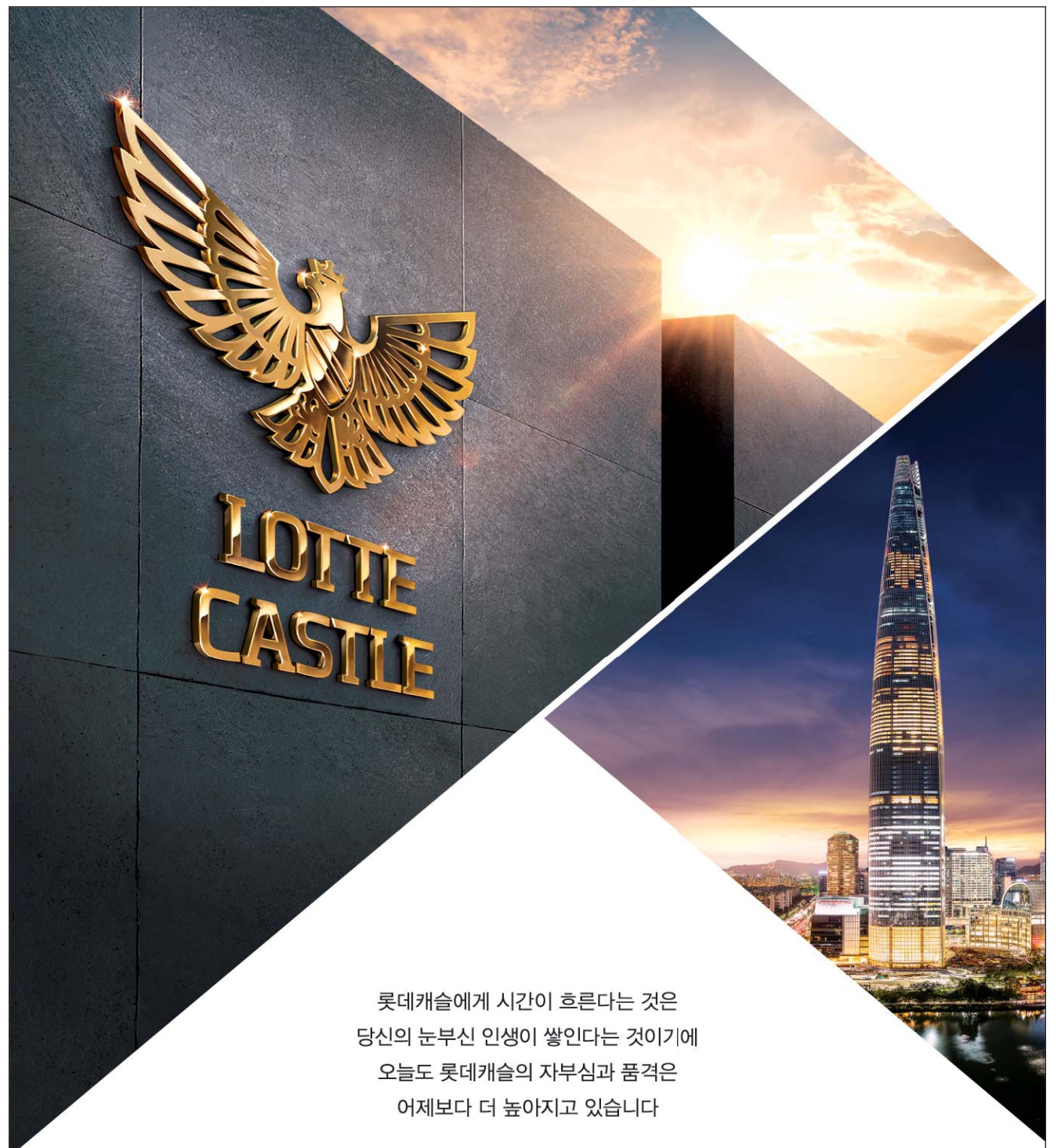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담당 전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설립 목표 중 하나"라며 "현재 수도권에서 24개 기업이포항으로 내려왔으며 서울시 창업하던 포스텍 학생들도 이곳에서 창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포항이다.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도 창업을 위해 내년부터 이곳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에게 산학연 협력 인프라를 제공하고 포스코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화 실증 기회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벤처 펀드를 활용한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자금 지원, 정부와 지자체와 연계한 투자유치(IR) 기회도 제공한다. 입주기업들은 다른 인큐베이션 센터와는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호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포스코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개관했다

“데이터 범위 확대하고 수익성 다각화해 위기대응 나서야”

인터넷뱅크 5주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시 건전성 기준 차별화 된 신용평가제도 마련해야
중금리 대출 집중엔 리스크 분산 한계

“경제위기 상황에는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인터넷뱅크 5주년: 내 손 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며 금융회사 간 경쟁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리인상으로 주 고객인 스타트업이 예금액을 대거 인출하면서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특히 민 교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에 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넷뱅크 5주년: 내 손 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49%로 1년 전과 비교해 0.27%포인트(p)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1년전보다 0.44%p 오른 0.85%로 집계됐다.

◆고객데이터 늘려 신용평가 고도화해야
토론회에서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안신용평가에 폭넓은 데이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교수는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하고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라며 “은행에 접근해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기존

신용평가제도에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보다 차별화된 신용평가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신용평가제도는 추심회사가 돈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70년간 굳어져온 제도”라며 “기존 은행이 이용하는 신용평가제도를 따라가기 보다 소비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제도로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본업인 금융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보다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금리대출 리스크 커… 수익 다각화해야

인터넷은행에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투자자문업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 대출에 한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ETF는 사실상 특정증권신탁의 형태로 중

개 돼 소비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는 신탁보수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 투자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ETF 중개시장에 진입할 경우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은행의 투자자문업 허용 범위가 부동산 자산등으로 한정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여 교수는 “부동산 이외 투자자문업 경영은 현재도 법령 개정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성상 플랫폼 안에서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에만 집중할 경우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시하고, 향후에는 해외진출을 하면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롯데하이마트

지금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하이메이드 4도어 냉장고
HMT-210304
FRESH 세미보존냉장고
판매가 779,000원

하이메이드 12KG 세탁기
HMW-2253S
스티어런스 세탁조 탑재
판매가 399,000원

하이메이드 UHD TV(108cm)
HMT-63LS
인드루이드 스마트 TV
판매가 459,000원

하이메이드 핸드형 무선 청소기
HMV-UP140
13등급 미세먼지
판매가 113,000원

하이메이드 대용량 전자레인지(25L)
HMV-ME25B
600W 고속레인지
판매가 119,000원

하이메이드 기계식 선풍기(35cm)
HM-NF1423W
사운드이더미엄 선풍기
판매가 49,000원

하이메이드 헤어드라이어
HF-D-UN1610W
국내생산 1650W
판매가 43,000원

하이메이드 X 코지마 4D 안마의자
HM-X5000(G)
LS프리미엄
판매가 4,280,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삼성,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과학기술원 반도체학과 신설

내년 3월부터 학석사 통합 운영
참가학생 등록금 전액·장학금 지급
졸업생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취업

삼성이 지역 반도체 전문가와 생태계 육성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27일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은 총 100명이다. 5년간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간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한 커리큘럼을 통해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과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창의성을 높이는 융합 수업도 병행한다.

참가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인턴 실습 기회와 임직원 멘토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도 보장한다.

삼성은 이번에 계약학과를 추가 개설하면서 7개를 운영하게 됐다. 성균관대와 연세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서 이미 운영 중, 일부 계약학과는 정원을 확대하면서 2029년부터 반도체 전문가를 연간 450명씩 배출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인

력 수요는 2031년 30만4000명으로 2021년(17만70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에서 배출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5000명에 불과해 경쟁력 저하와 생산 및 연구시설 해외 유출까지도 우려된다.

삼성은 이를 통해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과학기술원에 신설한 계약학과는 공정 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설계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길러내던 기존 계약학과와 함께 반도체 핵심 분야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로 반도체 산업 수도권 풀림을 완화하고 인재육성과 산업 성장 선순환 체계도 기대된다.

삼성이 새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 데에는 이재용 회장 역할이 컸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전국 사업장을 돌며 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지역 육성에 60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지방대와 계약학과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적인 반도체 인재 인프라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뿐 아니라 지역 상생도 함께 이뤄냈다.

삼성은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 계약학과와 함께 산학협력 지원, 박사 장학생과 지방 국립대 지원 등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을 통해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 등 국내 신진 연구자의 혁신적인 연구도 지원한다.

/김재용기자 juk@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전세금 올려 달라는 연락도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도
이제 걱정없어!

우리는 청년이니까!

저금리대출로 부담은 가볍고
더 높아진 대출 한도로 보금자리 마련은 쉬운
전세대출의 청년특권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고금리시대! 청년들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우리WON뱅크로
바로 가입하기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99세)
대출한도 최대 1억원, 금리 연 1.2%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만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원, 금리 연 1.0% ~ 연 2.1%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기 내용은 2022.11.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정책, 자금운용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가점은행제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취급자에게 충족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지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 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6600, 1599-6000, 1588-6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wooribank.com) 2022.11.10 준법감사관-10132 심의필 (유효기일: 2023.12.31)

‘검수완박’ 판결 날선공방… “억지 면죄부” vs “한동훈 사퇴”

(輿)

(野)

법사위 현안질의

권한쟁의 현재 판결 사전인수 해석
與 “법사위원들 심의·표결권 침해”
野 “현재 결정 수용하고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사전인수’ 식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정당의 행태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재현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현재 판단 이후 국민의힘은 ‘면죄부’, ‘기울어진 운동장’ 등이라고 표현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청구가 각하된 것을 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의 주장에 법무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현재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개정된 시행령 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도 현재의 시행령 상에서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국민들이 강매, 마약, 무고, 위증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호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설명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은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위장탈당은 더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에서 현재 각하에 따른 한동훈 사퇴론이 나온다고 묻자, 한 장관은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철승 민주당 의원은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이 있었다. 제가 그때 미디어법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난투극이 일어날 정도로 여야가 심각하게 격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가 똑같은 판단을 했다”며 “2020년 5월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손에 꼽는 어마어마한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 때도 이에 대해 현재가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현재 판결이 새롭지 않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럼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해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현재 판결) 소수의견에 4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결정이 나왔으면,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고, 그 소수의견이 지적인 점에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최고의원회의

민생특위위원장 조수진,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임명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 연기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했다. 현역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19년 김세연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 이후 김기현 대표로부터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박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정책위, 국회 정부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도 시작했다.

당은 같은 날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인선 구성도 발표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며,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의원

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생희망특별위원회에는 윤선웅 목포당협위원장(목포 새마을문고 이사),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광대중 언론 칼럼니스트, 청년최고

위원회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도 함께한다.

다만, 이날 예정된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됐다. 홍보본부장은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로 알려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당은 원내대표 및 당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송인석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김미애·박대수·윤두현·장동혁·전봉민·홍석준 의원이 참여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석비서관회의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부산엑스포 유치 추진 논의 관련 국무총리 주례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정책안, 당정협의 강화 국민여론 충분히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향해 당정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성과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게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비롯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규모 당직개편 단행… 지명직 최고의원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통합·탕평·안정 중심 지도부 쇄신
정책위원회 의장에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바꾸는 등 ‘통합·탕평·안정’을 중심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내부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이후, 친이재명계가 요직을 차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단 내부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회의를 가진 후 당직 개편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의원에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구갑), 정책위원회 의장에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 을), 전략기획

위원회에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 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김성주 의원(재선·전북 전주 병), 디지털전략 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조선·경기 김포 을), 수석 대변인에 권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 병), 대변인에 강선우 의원(조선·서울 강서 갑)으로 개편했다.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이날 개편으로 임선숙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문진석 전략기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장, 김남국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의겸·황명선·김현정·임오경 대변인은 당직을 내려놨다. /박태홍 기자



KB가 마련한 희망사다리가 놓여집니다

KB국민희망대출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분들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등급은 올리고, 이자는 낮춰
대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KB국민희망대출을 시작합니다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으세요”

대출대상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 (재직기간 1년 이상/연소득 2천4백만원 이상)	판매기간	2023년 3월 27일(월) ~ 판매한도 소진 시까지 (5천억원 규모)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단,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환금액 이내)	상환방법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거치기간 미운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연 8.76% (2023.3.24 현재, MOR 12개월 변동주기, 대출기간 10년, 신용등급 5등급 기준) 최고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과 관계없이 연 10% 미만으로 운영됩니다		

* 상기 대출금리 연 8.76%는 기준금리에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2023.3.24 현재, 기준금리 : 연 3.65%, 가산금리 : 연 5.11% (대출기간 10년, 신용등급 5등급 기준) ※ 기준금리 : MOR 12개월 변동주기로 운영되며,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증가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희망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합니다. 단,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대출의 상환금액까지 가능하며, 고객의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라 DSR은 적용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리제산정주기가 도래시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어신부(이)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관서, 연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청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3-1049호(2023.03.23), 광고물 유효기간 2023.03.23~2023.12.31까지

저축은행 작년 순익 악화... 예금자보호금액 확대 등 요구

79개사 순익 전년비 19% 감소
연체율 0.9%p 올라 3.4%로 상승

업계, 건전성 지표 문제 없지만
금융환경 대처 규제 완화 목소리

저축은행의 작년 실적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9곳 저축은행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1조 5957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3689억원(18.8%)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율 또한 3.4%로 지난 2021년 말(2.5%)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리테일(소매 금융) 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 금액 확대와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지난해 실적이 부진하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시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예금보호금액 확대가 저축은행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호금융상품'에 한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보호 금액이 늘어나면 시중은행에 비

해 금리를 1~2%p 더 지급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 관측이다.

예금자보호금액 확대 요구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만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저축은행권 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는 만큼 영업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규제 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이상을 지역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 해당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총 대출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 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등 6곳으로 나뉘져 있다. 상위 10곳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업구역 규제 완화의 경우 '서민 금융기관'이란 저축은

행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신호 등을 점검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에도 건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잠정 당기순이익 또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추가 총당금 적립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79곳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실제적립률은 법정 기준치인 100%보다 13.4%p 높은 113.4%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또한 14.5%로 전년 동기(12.6%) 대비 1.9%p 올랐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수년간 건전성에 방점을 둔 운영을 해왔다"며 "건전성 지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함영주 "이자·수수료 체계 원점서 재검토"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1주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사회 구성원과 상생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조했다. 또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그룹임원 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40년의 역사를 지닌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한 원인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손님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맨 앞줄 가운데)이 그룹사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 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감면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 사회 등 전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4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실천방안으로는 ▲상생 금융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業)의 본질인

신뢰 회복 ▲모든 사회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실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디지털 금융 선도 위한 인재육성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 내부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건강한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그룹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우리금융 지구촌 소등행사 '어스아워' 동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구촌 소등행사 '2023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지구를 뜻하는 어스(Earth)와 시간을 의미하는 아워(Hour)를 합한 용어로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소등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2007년 호주에서 시작된 어스아워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시민들이 동참하고 뉴욕 타임스퀘어, 프랑스 에펠탑 등 1만8000여개 세계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2년에 이어 우리금융그룹 본사 건물을 비롯해 ▲우리금융디지털타워 ▲우리금융상암타워 ▲우리금융강남타워 등 그룹 주요 사업장이 동참해 건물 내의 모든 조명을 한 시간 동안 소등했으며 사내 홍보를 통해 전 임직원들이 가정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안내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본사의 2023 어스아워 캠페인 소등 전·후 모습. /우리금융

우리은행 플래그십 2호점 신설

서울디지털프리미엄금융센터 개설

우리은행은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기업 또는 자산가에 특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은행 플래그십(Flagship) 영업점'인 '서울디지털프리미엄금융센터'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플래그십(Flagship) 영업점'은 우리은행의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

프라인 채널로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복합점으로 지난해 2월 판교역에 1호점을 개설한 바 있다.

'서울디지털프리미엄금융센터'가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1만3000개 기업과 150개 지식산업센터가 입점해 있으며 총 14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

어 기업금융과 함께 복합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우리은행은 한단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영업점 최초로 매직글라스가 적용된 프라이빗한 상담공간과 갤러리 형태의 고급스러운 라운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근 기업체와 임직원은 물론 고액 자산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한층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

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 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G, 5G 특화망 기반 미래 먹거리 '스마트 팩토리' 본격화

LG전자 주총서 모든 안건 의결
서승우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90억 그대로 승인
기간통신업·화장품판매업 추가

LG전자가 미래 기업으로 혁신 작업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27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LG전자는 이번 주총을 통해 서승우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90억원으로 승인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700원에 우선주 750원으로 의결했다.

LG전자는 예고했던 바와 같이 사업 목적에 기간통신사업과 화장품판매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판매업은 프라엘을 비롯한 뷰티·의료기와 결합해 구매 편의성과 제품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한 바, 이를 확대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LG전자는 방문간호 기업인 바



LG전자가 창원 LG스마트파크에 지능형 자율공장을 적용했다.

야다홈헬스케어와 LG메디피인을 활용한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미국 시장에서 프라엘 메디케어 등 개인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계열사인 LG생활건강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은 LG전자가 미래 사업,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간통신사업은 5G 기술을 활용해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무선 사설망 '프라이빗 5G'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팩토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계

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시설 업체뿐 아니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와 네이비 등 IT 업체까지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시장 규모는 수백조원 수준, 연간 성장률도 10%에 달할 전망이다.

프라이빗 5G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핵심 통신 기술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특화 서비스로, 공장에 모든 사물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IoT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수 있다.

LG전자는 이미 창원 스마트파크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역량을 확인한 바 있다. 자동화는 물론 친환경성까지 더해 창원 공장은 '등대 공장'으로도 선정됐다. 여기에도 LG유플러스의 '5G 전용망 기반 물류 로봇(AGV)'을 도입하며 프라이빗 5G 기술을 실현했다.

스마트팩토리에 필수적인 로봇 기술도 일찌감치 육성해왔다. SG로보틱스와 노바로보틱스 등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는 물론, 2018년 산업용 로봇 기업 인로보스타를 인수하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맡을 인공지능(AI) 역시 LG가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다. LG는 초거대 AI 엑스원을 구축

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다양한 시도를 성공시켰다. LG전자는 이미 단순 업무에 AI를 대거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1분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업이익 1조원 안팎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DS부문 대규모 적자로 흑자 달성조차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전장 사업 등 미래 먹거리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OLED TV를 비롯한 영상 가전과 함께 생활 가전 분야에서도 '신가전'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PBV기술 철학·비전 공개

2023 서울모빌리티쇼 참가

11개 전시품목 3개 구역에 배치
엠비전·헬스케어 신기술 등 선보

현대모비스가 미래형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기술 철학과 비전을 공개한다. 핵심 콘텐츠는 '엠비전 TO·HI'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달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 CES에서 호평 받은 엠비전 시리즈를 비롯해 현대모비스의 미래 모빌리티 지향점을 국내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선보인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는 현대모비스가 엔데믹 이후 국내 소비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다. 'Hi! For better Tomo

orrow'(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를 주제로, 역대 가장 넓은 면적의 전시공간(720㎡, 약 218평)에서 현대모비스가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세계를 소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전시품 총 11종을 3개의 구역에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미래 모빌리티존과 기술 홍보존, 그리고 브랜드존에서 현대모비스의 미래 선행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존에는 PBV 엠비전 TO와 HI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엠비전 TO는 전동화 기반 자율주행 콘셉트카로, e-코너 시스템과 자율주행 센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등의 신기술들이 융합된 차량이다. 관람객들은 좌우 바퀴가 90도로 회전하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 360도 회전 등을 하는 PBV를 탑승하며 색다른 이동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레저와 휴식 목적에 맞게 개발된 엠비전 HI도 전시된다. 차량 내부에는 자유롭게 위치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자와, 시선 인식 기술이 탑재된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시선을 돌리고 손을 움직이는 동작만으로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쇼핑 등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다.

기술 홍보존인 M. Tech 갤러리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들이 대거 전시된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세계 최초 뇌파 기반 헬스케어 신기술 '엠브레인(M. Brain)'과 페이스어워드 우수 혁신 기술로 선정된 '차세대 후륜조향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관람객들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기술 설명을 도와줄 도슨트(해설가)도 배치한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ESG 대학생 아카데미 9기' 발대식

LG전자는 최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ESG 대학생 아카데미 9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대학생 32명이 참석하며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5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LG전자

SK케미칼, 용기 이어 친환경 섬유시장 진출

화학적 재활용 소재 공급 본격화

SK케미칼이 친환경 용기 시장에 이어 섬유 및 의류 시장에도 '화학적 재활용' (Chemical Recycle) 소재 공급을 본격화한다.

SK케미칼은 플라스틱 순환생태계 플랫폼 '이음'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기업인 '아트임팩트', '프로젝트 1907'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재활용 소재 섬유 원단이 출시돼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원단들은 '폴리에스터 100%'와 '스판 혼방' 등으로 SK케미칼이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를 원료로 공급해 아트임팩트와 프로젝트1907 등이 상업화한 것이다. 화학적 재활용이란 폐플라스틱을 분자단위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만드는 것으로 석유를 원료로 하는 버진(Virgin)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아트임팩트는 친환경 패션 소재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소셜벤처기업이고 프로젝트1907은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패션 브랜드이다. 두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원단을 자체 패션 브랜드 제품에 활용하고, 친환경 원단이 필요한 의류회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이음'을 통해 이번 협업을 주도했고, 앞으로 화학적 재활용 섬유의 공급망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B2B2C(기업간·소비자간거래)' 형태의 판매망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음 사이트에서는 방문 고객들에게 재활용 소재 원단으로 제작된 스카프와 같은 패션 제품이 담긴 '섬유소재경험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통해 SK케미칼은 의류·생활용품·캠핑용품 등을 다루는 다양한 섬유패션 업체들과 협력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현대차, 일자눈썹 단 '쏘나타 디 엡지' 디자인 첫 공개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가 세련되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차가 27일 8세대 쏘나타의 풀체인지급 부분변경 모델인 '쏘나타 디 엡지'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쏘나타 디 엡지의 차명은 풀체인지를 급으로 바뀐 쏘나타의 날렵하고 직선적인 디자인과 개성있는 삶을 살아가는 고객들의 스타일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쏘나타 디 엡지는 2019년 3월 출시 이



현대차 '쏘나타 디 엡지'

후 4년만에 선보이는 풀체인지를 부분변경 모델이다.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감성을 더한

스포츠함)'를 바탕으로 한층 넓고 날렵한 인상을 더해 스포츠 세단 느낌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인테이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 디자인으로 역동적이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KT 4개월 만에 4번째 후보 선임... 주주 “외압 반대 운동”

박종욱 부부장 대표 대행 가능성
재선임 안건 통과 여부 불투명
4월에 이사진 구성·선임 결정
올해 가장 부진한 실적 낼 수도

KT는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대표가 후보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외압으로 KT 대표 선임은 결국 3차례나 무산된 셈이다. 4개월 만에 4번째 후보 선임을 진행해야 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로 인해 KT 경영 공백은 현실화됐다.

KT 소액주주들은 윤 후보 사태를 ‘정치권의 외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여권을 성토했고 나섰다.

◆빨라야 5월 새 CEO 선임될 것

KT는 27일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윤경림 대표 최종 후보가 사퇴한다고 27일 공식 밝혔다. /KT

윤 후보의 최종 사퇴로 사내이사로 공식 추천된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 TF장의 후보 자격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KT의 이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해 2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상법 제

386조에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과 사규의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장이 대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당분간 더 대표 체제를 맡을 수 있지만 이번 대표 선임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은 바 있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KT는 상반기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다 다 날린 것으로, KT의 경영 공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월 말 이 됐지만 아직까지 인사 및 조직 개편도 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올해 통신사들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기존 사외이사인 강충구 이사회 의장, 여은정 이사, 표현명 이사가 임기가 끝나면서 주총에서 1년 재선임 건이 안건에 올라왔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글로벌 의결권 자

문사인 ISS는 이들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김대유, 유희열, 김용현 등 기존 사외이사 3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빨라야 5월이 되어야 KT의 새 CEO가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중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진 선임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진 총원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CEO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KT 혼란 가중

‘KT 주주모임’은 윤 후보 최종 사퇴가 결정되자 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KT 주주모임은 소액주주들의 힘을 더 키우고자 주시수 2023주를 목표로 ‘KT 주식 한주 더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KT 주주모임 대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압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이 정권은 정치권 낙하

산 인사를 얹혀 먹거리를 챙기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다”며 성토했다.

네이버 KT 종목 토론실에서도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주주는 “최소한 국민 눈치라도 봐야 하는데,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T 직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KT 한 직원은 “3년마다 CEO가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올해가 특히 더 심하다”라고 호소했다.

KT 노조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즉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경영공백을 없애고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영공백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낙하산이 대표로 앉혀진다면 KT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외면당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경제불황에도 게임업계 임금 인상 릴레이

넥슨·엔씨소프트 등 6~8% 인상
매출 상승·인재 보유 전략 원인

게임업계 사이에서 거세게 불었던 임금 이슈가 한동안 잠잠해 질 전망이다. 노조가 결성돼 있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기본급을 인상 시키면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고 기업은 눈치게임에 시작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게임사인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의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도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6~8%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임직원 연봉을 약 1200만원 일괄 인상시키는 등 연봉인상 릴레이가 이어졌던 이후 2년 만이다.

그간 연봉 인상 릴레이는 게임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인건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신작부재와 신사업 투자 탓이다. 이에 그간 게임사들은 인건비를 위주로 허리띠를 졸라 때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은 직원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약 8% 인상한다. 세 기업 모두 매출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넥슨은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8% 인상 협의했다. 넥슨은 지난해 고용한파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기본급을 8%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노조가 나서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드롭 권고사직 관행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오히려 직원들의 보호 효과, 고용안정 효과,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웹젠도 기본급을 평균 8%로 인상했다. 웹젠 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을 놓고 게임업계 중 최초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합의로 이어졌고, 올해 연봉인상에 반영됐다.

지난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둔 엔씨소프트는 넥슨, 스마일게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약 5%~6%대의 임금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엔씨는 글로벌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엔씨의 이번 연봉인상 방침은 넥슨, 스마일게이트를 중심으로 게임업계 전체에 불어닥칠 연봉 일괄 인상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BMW코리아, 뉴 X1·뉴 iX1 출시

BMW코리아는 국내에 뉴 X1과 뉴 iX1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BMW X1 외관은 전면부에 7자 형태 LED 주간주행등과 일체형 키드니 그릴, 후면에는 상단을 향해 꺾이는 LED 리어라이트와 대형 디퓨저 등 새로운 BMW 패밀리 룩을 이어받았다. 차체도 길이가 55mm, 폭은 15mm 늘었다. 높이는 15~25mm 높아졌다. 트렁크 용량은 490~540L, 2열을 접으면 1495~1600L까지 넓게 쓸 수 있다. 이번에는 전동화 모델 뉴 iX1도 추가됐다. 5세대 BMW e드라이브 시스템에 편의 사양도 탑재했다.

/BMW코리아

포바이포 샌드박스 자회사 SBXG 전격 인수

비주얼 테크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자회사 ‘SBXG(구, 샌드박스게임)’를 전격 인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바이포는 이번 인수를 통해 SBXG 회사 전체 지분 중 약 60%를 확보하며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기존 모회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SBXG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앞으로 상호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스포츠팀 ‘리브샌드박스’로 널리 알려진 SBXG는 게임, 콘텐츠, 리테일 부문에 걸쳐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춘 e스포츠 업계 대표 기업이다.

/최빛나 기자

아시아나항공 ‘전사 기업결합 TF’ 발족

대한항공과 해외 기업결합심사 시작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기 위한 ‘전사 기업결합 TF’를 발족했다.

원유석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한 해당 TF는 임원 7명을 포함해 총 42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는 전략기획본부장이 팀장이던 기존 TF를 대폭 강화한 조치다.

이번 TF는 운영 체계를 법무, 전략기획부문을 주축으로 한 총괄그룹과 여객, 화물, 재무, 대외협력부문을 구성된 지원그룹으로 구분해 효율성을 높였

다. 총괄 그룹은 경쟁당국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문서 취합, 검토, 자문사와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지원 그룹에서는 경쟁당국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생성에 주력한다.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가 시작되면서 각 경쟁당국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점점 방대해져 심사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심 TF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인력을 추가로 보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TF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원유석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필두로 아시아나항공의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배터리 핵심 소재 ‘황산니켈’ 공장 준공

LS그룹, 27만톤 규모 확대 예정

LS그룹이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S는 27일 충남 아산 토리컴 사업장에 황산니켈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토리컴은 LSMnM 출자사로 유기금속을 리사이클하는 회사다. 지난해 3200억원 매출을 거두며 국내 최대 규모 도시광산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새 공장은 LS MnM이 생산한 조황산 니켈을 공급받아 불순물 정제와 결정화를 거쳐 이차전지용 황산 니켈을 생산하게 된다. 연간 생산 능력이 5000톤 규모로, 2030년까지 27만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LS MnM은 이를 위해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활용, 니켈 수산화 침전물(MHP)과 폐이차전지 전처리 생산물(블랙파우더) 등 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사업에도 진출해 황산 니켈 전량을 활용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산니켈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구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양극재 공정에 바로 투입해 생산 단계를 줄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구자는 회장은 “이번 황산니켈공장 준공이, LS그룹의 미래에 작지만 의미 있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LS MnM과 토리컴의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OTTERIA 

촉촉한
반숙 계란

고소한 참기름
풍미를 더한
고추장 소스

한정
판매

한국의 맛을 버거에 그대로 담았다!

전주비빔
라이스버거

단품 6,900원 세트 8,800원

상장사 1분기 실적 암울... 車·조선·항공 등 주목해 볼만

상장사 영업이익 전년 比 절반 ↓
SVB 파산으로 이어진 금융 위기에
미국 금리 격차까지... 증시 악영향
완성차 생산 정상화, 수출액 34% ↑
현대·삼성 등 흑자 전환 예상
실적 안정성 높은 종목 상승세 보여



/유도이미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고강도 긴축 속에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1분기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에서는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낼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항공, 조선 업종의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곳 이상의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개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하 전망치) 총액은 전년 동기(50조659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6조103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적 전망치가 취합된 199개 상장사 중 약 45%에 이르는 89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매출 상위 10개사 중 6개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88.1%), 포스코홀딩스(-66.6%), SK이

노베이션(-63.5%), LG전자(-44.6%), LG화학(-40.9%), HD현대(-24.2%) 등이 크게 줄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 시장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금리 격차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기업 실적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규모"라며 "코스피 상장사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반등을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실적 추정치의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이 정상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한 105억 81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선 업계도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43억원, 96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채현기 흥국증권 연구원은 "은행권 리스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영향권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반도체 적자 전망에도 외인 '삼성', 기관 '하이닉스' 줍줍

부진 딛고 하반기 개선 기대
삼성전자 영업손실 680억
SK하이닉스는 10조원대 예상



/뉴스시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1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표 종목들을 사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부진했던 이들 종목들이 상승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9051억원치를 사들였다. 지난주(20~24일) 중에만 7053억원치를 순매수하면서 직전주 순매수액(1997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외인의 수급세에 힘 입어 해당 기간 동

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13일 증가(6만원), 대비 24일까지 5.00% 오른 6만 3000원까지 올랐다.

반도체 대표주 수급세는 기관투자자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기관의 최대 순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로 2주 동안 3521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기관

은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를 1791억원을 사모는데 이어, DB하이텍 1127억원을 순매수하면서 반도체 대표 종목들을 사모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최근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딛고 하반기부터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사모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다음달 7일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는 반도체(DS)부문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DS의 1분기 영업손실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영업손실이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영업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각사마다 실적 전망치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전사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다올투자증권은 반도체 부문 대규모 손실로 인해 매출액 61조원, 영업손실 6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방 수요 악화로 서버와 PC, 스마트폰 고객사가 메모리반도체 주문을 줄이고 재고 소진에 주력했다"라며 "메모리업계 재고일수가 6개월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금융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추정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손실이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협황이 최근 바닥을 지

나고 있어 이르면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반등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DS부문 실적은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도원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2분기 이후 재고감소와 공급 축소 효과로 개선이 예상된다"며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급축소 효과는 3분기부터 수급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둔화가 불가피 하지만 반도체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수급 개선에 초점을 둔 종목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내달 1.9만세대 집들이... 올해 月기준 최저 수준

5월부터 입주 물량 다시 늘 듯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오는 5월 이후 다시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 증가와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 물량은 총 1만9065세대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최저 수준이다.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2만5806세대) 대비 26.12%(6741세대)가량 감소했고 전월(1만9610세대)보다 2.78%(545세대) 정도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

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1만769세대가 입주한다. 경기와 인천 지역은 각각 8341세대, 2428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지방은 8296세대가 입주한다. 대구가 3057세대로 가장 많다. 동구(1881세대), 서구(856세대), 달성군(320세대) 순이다. 이밖에 대전 1747세대, 경북 1717세대, 전북 1104세대 등 순으로 많다.

오는 5월부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매매·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2차 현대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77㎡가 5

억4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 전셋값(6억4000만원) 대비 1억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지난 1월 전용면적 137㎡가 8억6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이달 전셋값인 8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6.98%(6000만원)에 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소위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도 늘고 있다"면서 "이달 내 전매제한 완화의 본격 해제를 앞두고 있어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분양한 단지도 이번엔 바뀐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미래에셋증권, ETN LP 평가 'A등급'

발행사 선택 때 유용한 정보될 듯

미래에셋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월별 시행되는 상장지수증권(ETN) 유동성 공급실적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동성공급자(LP)란 금융상품에 대한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참가자를 말한다. ETN의 LP는 발행 증권사가 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ETN 시장가격이 지표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TN 정규시장 거래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ETN 시장가격의 비정상적 형성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소는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들로 하여금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간격을 의미하는 호가스프레드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월별 ETN LP 평가로 이어진다. 해당 평가는 LP의 의무 이행도(40%), 적극성(20%), 스프레드 제한(20%) 및 평균 호가 수량(20%)에 대한 평가결과다. 평가등급은 A, B, C, D, F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되는데 'F' 등급 부여 횟수에 따라 LP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따라서 해당 평가는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한 ETN의 발행사를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

남경민 미래에셋증권 파생부문 팀장은 "ETN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발행사가 유동성을 공급하여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창업 초기에 갈팡질팡... 지원사업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소진공 도움으로 재기한 소상공인
 귀농해 굽쟁이 사업 시작 김 대표
 “창업 초기 어려움 극복 큰 도움”
 경남 김해 ‘단디무라’ 안 대표
 “지원받아 온·오프라인 확장”



김인석 굽쟁이다팜 대표 | 김대중 골든아워 대표 | 백효정 뜰들이다 광고상현역점 대표 | 안은영 단디무라 대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다 명퇴후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곤충으로 '제2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충북 음성에 귀농해 회사를 차린 굽쟁이다팜 김인석 대표. 그는 곤충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적지 않은 비용과 창업 후 정보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초기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병원 사내 벤처로 시작한 골든아워. 이 회사는 자동팽창식 에어조끼 원리를 이용해 환자 이송시 필요 인력을 최소화하는 '인명 구조용 에어캡슐'을 개발했다. 제품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골든아워를 창업한 김대중 대표는 수출을 위해 필요한 나라별 의료기기 인증 과정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몰랐다. 해외 판매를 위한 품질경영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 패키지'였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진단 ▲경영기본교육 ▲경영개선 사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전직기초교육 ▲전직특화교육 ▲재창업교육 ▲재창업 사업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폐업부터 재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인석 대표는 “소진공의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가공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사업을 단단히 재 정비할 수 있었다”면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굽쟁이에 대

한 일반의 거부감이었다. 하지만 굽쟁이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브랜드만의 심벌을 제작하고 굽쟁이를 좀더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조식품 ‘토파즈 굽’을 출시하면서 거부감을 싹 날렸다.

골든아워 김대중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과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수출을 위한 인증 뿐만 아니라 실험성적서, 품질경영시스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자문과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현재 골든아워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 취득이 막바지 단계에 달했고, 최근엔 국제 지식재산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회사의 인명 구조용 에어캡슐에 관심을 보였던 해외 기업과 실제 수출계

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표는 “창업을 하고 3년간은 매출이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소진공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 뿐만 아니라 경영을 하다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에서 ‘뜰들이다 광고상현역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효정 대표. 백 대표는 2021년 9월에 떡볶이로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 가게를 접고 6개월 가량 임대료만 내면서 버텼다. 백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신청했다 고배를 마시고 두번째 도전을 해 도움을 받은 경우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이 확정되고나니 매장 리모델링부터 마케팅, 홍보, 인건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e-나라도움 등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한국표준협회 관계자와 담당 컨설턴트에게 묻고 또 물어 점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백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를 통해 떡볶이에서 쌀밥으로 업종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점점 변화하는 매장의 모습을 보면서 재기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며 매출 숫자를 보고 웃음도 나왔다. 지금은 ‘하루 매출 100만원’의 꿈을 꾸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카페를 겸한 음식점 ‘단디무라’를 운영하고 있는 안은영 대표. 2020년 가게를 차린 안 대표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말 이대로 주저앉는 줄 알았다. 불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에 홀로 아득하게 떨어져가는 느낌이였다.” 안 대표가 당시를 회상했다. 배달을 통해 만회를 해보려고 했지만 매출이 늘어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안 대표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 함께 고충도 나눴다. 닷새간의 온라인 교육도 받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개선할 것이 없어 보였던 매장은 바뀐 것이 천지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아이템도 늘렸다. 희망리턴패키지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밀키트 샘플링을 진행한 후 관련 사업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 대표는 최근엔 소진공과 김해시에서 지원한 스마트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도 가게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가맹점 수 33만개... 운송업종은 2배 늘어

공정위 2022년 가맹사업 현황 분석
 전년 비 24% ↑... 매출 감소는 지속
 교촌치킨·도미노피자 평균매출 상위



코로나19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30만개를 돌파했다. 교촌치킨, GS25, 도미노피자 등이 업종내 가맹점 평균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종(2만6402개), 편의점업종(5만2168개) 가맹점 수가 많이 증가했다.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 비중은 4.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반면,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73.0%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해 소규모 브랜드 증가추세가 완화됐다.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1년)은 약 3억1000만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가 전년에 이어 지속됐다. 다만, 외식업종과 도소매업종 평균 매출은 각각 1.4%씩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종 매출은 25.8%(약 40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외식업종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 모두 증가한 반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커피업종이 6.0% 증가한 반면, 치킨(-2.2%)·한식(-6.0%)·피자(-6.5%) 업종 매출은 감소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일종의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액 대비 4.3%로 나타났는데, 치킨업종이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과제빵(6.0%), 피자(5.0%) 업종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종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도 각각 전년 대비 8.1%, 36.0% 증가했는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특히, 가맹택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송업종의 가맹점 수가 2021년 기준 2만6402개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크게 늘어, 전체 가맹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특히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상위 5개 브랜드를 공개했다.

외식업종 중 치킨은 교촌치킨(7억5372만원)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치맥킹(7억2479만3000원), BHC(6억3253만1000원) 순이었다. 커피는 카페온화(5억3644만5000원), 투썸플레이스(5억605만9000원) 순, 피자는 도미노피자(8억1480만1000원), 잭슨피자(7억4125만7000원) 순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컸다.

서비스업종 중 교육(교과)은 종로학원이 30억681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교육(외국어)은 폴리어학원(26억1166만8000원) 평균 매출이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중공업 챗봇으로 선박 설계

삼성중공업이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을 개발해 조선업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AI 기반 챗봇인 ‘SBO T’을 개발, 선박 설계에 적용하는 등 스마트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BOT은 삼성(Samsung) 과 챗봇(Chatbot)의 합성어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그 의미를 분석해 사내 여러 시스템에 축적된 설계 노하우(Lessons Learned), 각종 규정 및 계약 정보 등을 찾아내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SBOT에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연동해 반복 업무를 간단한 명령어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설계 담당자는 도면 검색, 일정 관리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중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사명서 두산 떼고 HD현대 정체성 강화

HD현대인프라코어
 정기주총서 정관변경 안건 의결
 건설기계 3사간 시너지 극대화

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변경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올해 출시한 신규 건설장비 브랜드 ‘DEVELON’ (디벨론)에 이어 사명에서도 더이상 두산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번 사명 변경은 건설기계 3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난해 말 HD현대가 새로운 그룹명과 CI를 공개함에 따라 적극 검토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조영철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은 주주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이

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동화, 친환경, 무인화 기술 등 고객들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스마트 건설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사는 이번 정기주총회를 통해 모두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건설기계는 22일 주총을 통해 ‘HD현대건설기계’로 사명 변경을 완료했고, 현대제뉴인 역시 28일 주총에서 ‘HD현대사이트솔루션’으로의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글로벌비스·GS에너지 친환경 사업 공략

VLGC로 청정수소·암모니아 운송
 현대글로벌비스가 국내 에너지 전문기업과 손잡고 청정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사업 분야 공략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GS에너지와 ‘청정수소·암모니아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고 친환경 사업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비스는 양사가 추진하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 전반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를, GS에너

지는 수소·암모니아 생산과 수입 터미널 구축을 각각 담당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앞서 2000억원을 투자해 1척당 8만6000㎡를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건조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액화수소 운송 방식의 대안으로서 암모니아 운송에 주목하고 있다. 암모니아는 액화수소와 달리 영하 33도에서도 액화되며 단위 부피당 수소를 1.7배 더 저장할 수 있어 대량 운송이 쉽다. /양성운 기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韓 7연패엔 ‘IT·목공예’가 있었다

금 18개, 은 4개, 동 9개 획득 종합우승 34개 직종 출전해 31개 직종 입상尹 대통령 “강인한 의지·열정 쾌거”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통산 8번째 우승이자 7연패 금 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데는 정보기술(IT)과 목공예 분야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의 정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 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치하했다.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7연패 달성이자 통산 8번째 우승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7일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2~25일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8번째 우승이자 7연패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대만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가해 44개 직종에서 경기를 펼쳤다. 한국은 34개 직종에 국가대표가 출전해 31개 직종에서 입상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IT 분야에서 총 10개 직종 중 컴퓨터수리,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등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공예 직종은 4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다.

이밖에 제과 직종, 가구제작, 귀금속 공예, 육내제어, 용접, 전자출판 등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제1회 일본 도쿄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프랑스 메스 대회까지 10차례 모두 참가해 종합우승 8회, 제4회부터 제10회까지 대회 7연패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장애인기능올림픽의 성과가 많은 장애인 근로자 및 구직자 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조항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도 “34명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타는 투지와 기술위원 등 지원 인력의 노고가 합쳐진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선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열정과 능력을 우리 사회를 위해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종합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회원국 간 기능 교류를 통한 장애인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됐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연합(International Abilympic Federation)’ 주최로 4년마다 열린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주 69시간 “집중 단속·감독” vs “폐기하라”

(고용장관)

(노동계)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여부도 근로시간 노정 간 갈등 지속될 전망이다

‘주 69시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련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부도 집중 감독한다. 노동계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근로시간 관련 노정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각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폭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집중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법

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관이 할 일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선부른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폐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으로부터 5번째)이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6번째) 등 참석자들과 테이프커팅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포~베이징·상하이 3년 만에 운항 재개

다싱 노선 신규 취항 도심 접근성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의 수도를 도심에서 바로 연결하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과 중국 경제수도를 연결하는 김포~상하이 노선이 3년 만에 운항을 전면 재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한·중 노선 운항 재개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항공·중국국제항공·중국남방항공 4개 항공사가 26일부터 취항해 각각 주 7회, 총 28회·56편 운항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직전 개항

(2019.9.)한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김포~베이징 다싱 노선이 신규 취항해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도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다.

김포~상하이 홍차오공항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상해항공 4개 항공사가 각각 주 7회, 총 28회(56편)를 운항해 김포공항의 중국노선은 총 56회·112편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운항 수준을 회복했다.

공사는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1명에게 왕복항공권을 증정하고 중국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웰컴 키트를 선물하는 등 탑승객들과 함께 운항 재개를 축하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KOTRA ‘바이어 다시 만나기’ 수출 플러스 속도 ↑

KOTRA(코트라)가 최근 정부의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과 끊어진 바이어를 재연결하고, 수출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큰 국내기업과 바이어는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은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양방향으로 연결한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중앙회, 혁신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조합당 사업비 80%·최대 1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제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마감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유성케미칼 집단 ‘급성중독’... 정부 ‘뒷북’

고용부, 세척제 사업장 5월 집중감독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기 ‘급성중독’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뒷북’ 감독에 나서도 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 제조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한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됐고, 2월 두성산업 16명, 3월 경기도 이천 제조업체 7명 등이 연이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척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간 기능 손상을 일으

킨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 감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4월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주고,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자율개선 기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곳에 감독 계획, 재해 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최대 5000만원) 등을 안내해 예방 조치를 유도한다.

이후 5월부터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약 300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DAVID HOCKNEY

& BRITISH POP ART



1960s Swinging London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아트

2023. 3. 23 ~
2023. 7. 2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최악 가뭄’ 전남도, 물 절약 등 중장기 용수 공급대책 총력

물 수요관리로 도민 불안 해소
올 들어서도 120mm 강수량 그쳐
대체수원 확보·물 채우기 등 진행

전남도가 당장 시급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와 유사한 가뭄에도 문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중장기 물 공급 계획 등 가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남도는 27일 전라남도 가뭄대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무강우까지 대비한 물 수요관리로 도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총 강수량은 846mm로 평년 1390mm 대비 약 60%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120mm 강수량에 그치고 있다. 지난 22~25일 평균 27mm(광양 최고 46mm·완도 최저 11mm)의 단비가 내려 주요 상수원 저수율의 일부 상승이 전망되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전남지역 생활용수 저수율은



농번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26일 오후 전남 담양군 용면 담양호 상류가 메마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양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양호의 이날 저수율은 32.2%에 불과하다. /뉴스스

광역상수도(광역댐 4곳) 23.0%, 지방상수도(60곳) 41.2%이며, 농업용수 저수율은 4대호(나주·담양·광주·장성호-37.9%)를 포함해 54.7%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년 빈도의 최저 강우에도 연말까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전남지역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극한

상황까지 고려해 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생활·공업용수의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관정·운반급수 등에 144억원을 긴급 편성·투입했다.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양수정 정비, 관정개발·건설 등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영농기 대비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에는 물체

우기 작업도 진행 중이다.

수요 감축을 위해선 여수산단 공장 정비시기를 조정해 공업용수 절감과 생활용수 절감 시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 물공급 안정화를 위해 도서지역 광역상수 해저관로 건설과 영산강 농업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양만권 보조수원 확보를 위해 공장 하·폐수 재이용 시설도 추가로 설치해 물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경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선 연말까지 용수공급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가능성이 희박한 무강우까지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급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송 매체 광고, 재난문자, SNS 홍보, 민·관합동 캠페인 등 물 절약광고와 현장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하며 생활·공업용수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중소 10곳에 브랜드 개발 지원

경북도가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의 하나로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활용해 제품,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돕고자 추진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의성군

산림청 주관 평가 ‘매우 우수’

경북 의성군은 산림청 주관 ‘2022년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국도비 등 총 75억 원을 보조받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의성군 점곡면 동면리 일대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조림 70ha, 숲가꾸기 565ha, 임도 15.5km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림청은 선도산림경영단지에 대해 계획 수립, 실행과정, 성과달성 항목 등 총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의성(경북)=김상복 기자

광주시, 전국 최초 근로자 ‘반값 아침한끼’ 선보인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개소
구매비용 50% 지원해 절반 가격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반값 아침한끼’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서 ‘간편한 아침한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광주시는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은 물론 고령·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식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간편한 아침한끼’에서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정수량 이상을 전달까지 주문하면 배달 판매도 진행한다.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용빈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하남산단관리공단,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근로자 조식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다. 근로자들에게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끼가 되길 바란다”며 “조식 지원,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등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하남산업단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이용자 수요와 만족도 등을 살핀 뒤 1일 판매 지원량(현재 100~120개) 확대, 김밥 등 메뉴 다양화, 다른 산업단지로의 판매 지역 확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 지역 관광상품 플랫폼 구축 시동

쇼핑몰·OTA 시스템 개발 보고회

경북 안동시가 지역 관광상품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최근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스마트트립200 연계 쇼핑몰 및 OTA(Online Travel Agency)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스마트트립200사업은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 핵심사업이다. 경북 북부 시군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체험형 여행상품과 기념품을 개발, 온라인으로 국

내외 관광객에게 유통하는 플랫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경북 북부권 관광상품 유형은 한옥 체험 등 숙박 프로그램 일변도로 진행됐다는 문제가 지역 관광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재단은 스마트트립200 사업을 통해 관광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도화해 매력있는 관광상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의 연착륙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울산,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소규모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울산시 관내 대기·폐수 배출업소 중 5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준수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에 상황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가이드북)를 무료 배부한다.

특히 ‘상담사(컨설턴트)’는 현재 관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2인 1개조)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28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4년 만에 개최

국내 최대 벚꽃단지의 하나인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오는 31일 그린나래광장 일원에서 하얀꽃구름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4월 2일까지 3일간 벚꽃가요제, 청소년 댄스경연, 하동의 우수농·특산물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춘객을 맞는다.

축제 첫날 오후 1시 화개면 풍물패 ‘되가람’의 공연을 시작으로 관광객과 함께하는 즉석 레크리에이션에 이

어 5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다음 날은 오전 10시 즉석 레크리에이션 및 벚꽃가요제 예선, 관광객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벚꽃가요제 본선이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예선과 결선이 차례로 열리고 이어 벚꽃가요제와 청소년 댄스 경연 시상식, 오후 5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27억 용자지원

경남도는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용자금 대출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도내 시·군별 용자신청에 접수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협의회’를 거쳐 추천 확정된 1089명이 대상이다.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 원을 합한 총 327억 원을 지원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야쿠르트 생산과정 한눈에... 영상·VR 등 콘텐츠 '풍성'

Q 르포

hy 평택공장 가보니

일평균 유산균 음료 200만개 생산
별도 비용없이 개인·단체 관람 가능
유해균 처리 게임 등 체험 활동도

“야쿠르트 기준으로 시간당 4만5000병이 생산되고, 일 평균 유산균 음료 8개 품목 약 200만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 hy 평택공장에는 총 9대의 충전라인이 있고, hy팩토리+에서는 야쿠르트가 생산되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발효유 시장을 선도해온 hy의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평택공장은 공장 견학로 'hy팩토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평택 공장 내 프로바이오틱스 vr 체험부스 /hy



hy 평택공장 내부 모습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택 공장에서는 ▲야쿠르트 라이트 ▲알러머는 야쿠르트 3종 ▲야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 ▲멀티비타프로바이오틱스 ▲메치니코프 2종 등 총 8개 품목이 생산된다.

입구에 들어서면 '프레시 매니저' 캐릭터와 hy의 탑승형 냉장 전동 카트 '코코'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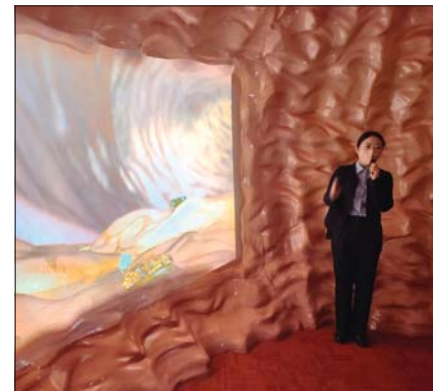
1층의 클린위생룸과 에어샤워룸을 통과하면서 옷과 신발에 묻은 이물질 제거, 배양·조합 공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배양탱크에서는 건강한 유산균을 엄선해 최적의 온도에서 배양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20일의 기간이 지나면 배양액이 완성되며 조합 탱크에서 달콤한 시럽과 섞이는 조합 과정을 거친다. 야쿠르트의 맛이 완성

되는 것이다.

야쿠르트에 들어가는 시럽에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가 함유된다. 이곳을 소개해주는 도슨트는 “총 36대의 배양 탱크에서 생산되는 양은 65ml 야쿠르트 기준 총 2700만병으로, 이는 서울 전체 인구 약 1000만명이 3일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충전 라인과 용기 성형·포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9대의 충전 라인인 시간당 4만5000병의 야쿠르트를 생산할 수 있다. 충전 과정을 거치기 전 이온세척기 시스템에서 용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고, 불량 용기는 용기선별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충전이 완료되면 정량의 야쿠르트가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문 도슨트가 유산균이 위에서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이후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용기에 인쇄된 날짜와 인쇄 품질까지 최종 확인하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포장 공정을 거쳐 즉시 10도 이하로 설정된 대형 냉장고로 옮겨진다.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식품은 제품 불량이나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함을 알 수 있었다.

성형 공정에서는 수자원료를 이용해 야쿠르트 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현장 도슨트는 “유산균 배양에서부터 용기 제조, 제품 완성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 생산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생산라인에 30단계에 걸친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후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사람의 위와 장을 구현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 체험관에서는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 유산균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영상콘텐츠를 상영하고 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VR(가상현실) 부스에서 유해균을 처리하는 VR게임도 즐길 수 있다.

한편 hy팩토리+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비용 없이 개인 및 단체관람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 마감한다. 방문 견학은 주 2회(화, 목요일) 진행된다. 방학 등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주 5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1회 견학 시간은 총 90분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소주 수출액 1.2억弗... 사상 최대

서구권 판매 증가... 전년비 16.4% ↑
저도수, 과일 등 트렌드 파악 주효

하이트진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2022년 소주 수출액 약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소주 수출액이며,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수치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7.1% 증가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 실적은 미주 지역과 유럽·아프리카 지역 등 서구권에서 돋보였다. 미주 지역이 82.4%, 유럽·아프리카 지역이 3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양한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과 저도수 및 과일 소주 인기 등 트렌드 파악이 주효했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타깃(Target)



하이트진로 수출용 소주 제품(왼쪽부터 참이슬 후레쉬, 자몽에이슬, 청포도에이슬, 자두에이슬, 딸기에이슬, 복숭아에이슬)

et), 독일 에데카(Edeka), 메트로(Metro) 등 주요 대형 매장에 참이슬과 과일 소주(자몽, 청포도, 자두, 딸기, 복숭아에이슬)를 입점하고 국가별 맞춤형 판촉물, 시음대를 설치하는 등 유통채널을 확대하며 소주 현지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하이트진로는 현지인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영국 뮤지컬

스티벌, 독일 클럽 행사, 이탈리아 영화제 후원 등 현지인 대상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2021년 글로벌 유튜브 통합 이후 재미를 강조,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진로(JINRO) 브랜드를 알리며 적극 소통해온 결과 구독 10만명을 돌파했다.

하이트진로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총괄전무는 “올해도 국가별 차별화 전략으로 K-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글로벌을 지향하는 세계 No.1 증류주로서 단계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국가, 중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성장 중인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9초9컷’ 챌린지 도전하세요”

인스타·스노우 참여... 내달 17일까지

롯데칠성음료의 99kcal 제로 슈거(Zero Sugar) 맥주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가 오는 4월 17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과 스노우에서 ‘#9초9컷’이라는 소비자 참여 챌린지를 진행한다.

증강현실(AR) 필터를 통해 진행되는 ‘#9초9컷’ 챌린지는 인스타그램과 스노우에서 ‘9초9컷’ 이벤트 필터 선택 후,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의 모델

선미의 촬영 포즈를 기반으로 직접 찍은 9컷의 사진 및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 ‘제로슈거’ 등의 필수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챌린지는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의 칼로리가 99kcal임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제품의 속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유통업계 신제품

오비맥주 한맥 리뉴얼 출시

오비맥주의 ‘한맥’이 한층 더 부드러운 진목넘김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다. 오비맥주는 한국맥주 역사 100년을 맞아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거를 만들자는 ‘대한민국대표 라거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한맥을 출시했다.

새로운 한맥은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부드러운 라거로 거듭나기 위해 거품 지속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4단계 미세 여과 과정을 통해 부드러움을 방해하는 요소를 걸러내고 최상의 주질을 구현해 부드러운 목넘김을 극대화했다.



/신원선 기자

애경산업 AGE20's ‘벨벳 래스팅 팩트’ 선포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20's (에이지투웨니스)’에서 높은 커버력과 지속력으로 깨끗한 피부를 완성해주는 ‘벨벳 래스팅 팩트’를 출시했다.

AGE20's 벨벳 래스팅 팩트는 피부 각질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코팅 파우더’를 적용해 커버력과 밀착력을 높여 들뜸 없이 깔끔하고 편안한 피부를 표현해 준다. 얇고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로 촉촉한 발림성과 보송한 마무리감을 더했다. 특히 수분 진정에 효과적인 인어초 수를 60% 함유한 수분 베이스와 쿨링 진정에 효과적인 병풀추출물, 시카, 티트리 성분을 함유해 피부속부터 건조 없는 깔끔한 피부 표현을 유지해 준다.

/이세경 기자 seilee@

비비안, 매출 2100억 돌파... 영업이익 3배 ↑

차별화 된 제품 라인업으로 호실적
영업이익 57.1억... 10년만에 최대

비비안이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7일 비비안이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 57억 1271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302.5%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30억

5215만 원으로 13.4% 증가했다.

비비안 관계자는 “생산 효율 극대화 따른 원가 절감 및 제품 품질력 향상과 꾸준한 신제품 라인업 확대로 호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유통별 브랜드 기획을 차별화함으로써 사업 전반에서 골고루 매출 신장세가 나타났다. 홈쇼핑 부문 매출은 같은 기간 30%, 신규 사업부는 115% 늘

었다. 비비안 사업부와 활인점 사업부도 각각 8%, 7% 증가했다.

비비안은 지난 2020년 7월 손영섭 대표가 취임한 후 에슬레저, 어패럴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힘썼다.

손영섭 비비안 대표는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효율적 상품 운영과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으로 호실적을 냈다”며 “올해에는 원가 절감과 생산목표 달성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 향상 및 흑자 지속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J바이오사이언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박차'



영국·아일랜드 소재 기업 '4D파마' 신약 후보 발굴·플랫폼 기술 2건 특허·지식재산권 등 인수 계약체결

CJ제일제당의 레드바이오 독립법인인 CJ바이오사이언스가 새로운 글로벌 후보물질을 확보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및 아일랜드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4D파마(4D Pharma)'가 보유중인 유망 신약 후보와 플랫폼 기술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 도입되는 신약후보는 총 9건으로 고형암·소화기질환·뇌질환·면역질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4D파마의 진단과 신약후보 발굴 기술 플랫폼 2건을 포함한 특허 등 관련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인수할 예정이며, 계약금액은 양 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새롭게 확보한 신약 후보물질과 CJ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인포매틱스(생물정보학) 기술 기반의 이지엠 플랫폼(Ez-Mx™ Platform)이 접목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지엠 플랫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와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과 연관된 신약후보 및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임상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CJ바이오사이언스의 독자적인 플랫폼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오믹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FDA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치료제 CJRB-101의 1상·2상 임상시험계획서(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각 파이프라인의 상세 데이터 분석 등을 거친 후 연구개발(R&D) 전략에 반영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임상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의약품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0억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몸무게 70kg 성인 한 명이 약 38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류를 선별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CJ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올해 진행을 앞두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미국 FD

A 임상 외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신약 후보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2년 1월 그룹의 미래성장엔진인 '웰니스(Wellness)'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2021년 10월 인수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천랩'과 기존에 보유중인 레드바이오 자원을 통합해 설립된 바 있다.

출범 당시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 10건을 확보하고, 기술수출 2건을 통해 글로벌 1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세경기자 seellee@metroseoul.co.kr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해외 첫 특허'

'JW0061' 모낭 증식 모발 재생 촉진 미국·유럽 등 해외 10여 개국 출원

JW중외제약은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에 대해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Wnt 신호전달경로 기반의 탈모치료제 신약후보물질에 관한 것이다. 'JW0061'의 물질 특허가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10여 개국을 대상으로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JW0061은 피부와 모낭 줄기세포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시키는 핵

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안드로겐성 탈모증, 원형 탈모증과 같은 탈모 증상에 효과적이고 예방효과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Wnt2022' 학회에 참가해 JW0061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JW0061이 모유두 세포에 있는 G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되는 작용기전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는 탈모 작용기전을 규명한 저분자 약물의 최초 보고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위약군 대비 JW0061의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이 새롭게 형성되는 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 결과도

공개했다. 모발의 성장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순으로 세 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평균 50일 이상 소요되는 생장기 진입 시점을 JW0061 도포로 30% 이상(15일) 앞당긴 결과다.

JW중외제약은 2024년 상반기 JW0061의 임상시험 개시를 목표로 현재 비임상 독성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국 피부과 분야 핵심의료진과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특허 등록은 해외 시장에서 원천기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JW0061을 기존 탈모치료제를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소아근시 신약 후보물질 도입

홍콩 제약사 '자오커'와 맞손

광동제약은 안과용제 전문 홍콩 제약사 '자오커'로부터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중족 의료수요를 겨냥하여 안과용제 파이프라인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NVK002는 소아·청소년 근시에 적응을 가진 저용량 아트로핀 황산염 용액제다. NVK002는 저농도 제제 제조 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기술력이 반영돼 있으며 방부제 없이 24개월 이상의 실온보관이 가능하다.

아트로핀은 고농도(1mg 이상) 제제로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주로 산동에 처방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동공을 확장하는 기전으로 환각, 흥분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NVK002가 상용화되면 소아도 사용 가능한 아트로핀 제제로서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NVK002의 오리지널사는 미국의 바일루마(Vyluma Inc)로 지난해 10월 3년간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으며 올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제형허가를 신청할 계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왼쪽)와 홍콩 자오커의 리 샤오이 대표이사가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획이다. 광동제약은 NVK002의 아시아 권역 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오커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 내 수입·유통 등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NVK002가 광동제약 안과용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약 도입을 통해 NVK002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세정그룹 밀라노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제품 30% 할인

세정그룹은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과 '데일리리스트'가 국제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30% 할인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리비아로렌은 2023 F/W 파리 패션위크에서 크롭 기장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한 트렌디한 자켓, 코트 등을 선보였다. 올리비아로렌은 지난해 열린 2023 S/S 밀라노 패션위크부터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을 보이고 있다.

대표 제품인 '니트 배색 에코 레더 자켓'은 국내에서 이자아 자켓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크롭 기장에 카라와 단추 라인에 배색 자수 디테일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데일리리스트는 2023 F/W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루즈한 핏감의 자켓,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한 코트 스타일링을 공개했다. 세정그룹은 이번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올리비아로렌과 데일리리스트 제품들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안구함몰 치료 '가교결합 인공진피' 효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박태환 교수 치료결과 SCIE 학술지에 게재

안와골절로 인한 안구함몰 치료에 가교결합된 인공진피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구함몰 교정술에 가교결합된 인공진피의 효과를 보여준 세계 최초의 연구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박태환 교수(사진)는 '안구함몰 교정에 가교결합된 인공진피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는 두개안면외과학회지(Journal of Craniofacial Surgery)에 게재됐다.

지난해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부상 당했던 안와골절은, 눈과 주위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있는 안와를 둘러싼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주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안와골절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와 눈이 꺼져보이는 안구함몰이 나타날 수 있다.

박 교수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



하고 한달 이상 방치된 안와골절로 인한 안구함몰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는 1mm 두께의 가교결합된 인공진피를 적절한

두께로 포개어 함몰 부위에 이식했다. 환자들은 수술 전후 사진과 안면 CT 사진 등으로 시행된 사후평가에서 모두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안구함몰이 효과적으로 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전에도 안구함몰 교정을 위해 이식하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두께가 너무 얇고 충전재로서의 제한적 효능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공진피는 유방재건술, 코 성형술 등 다양한 수술에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교결합된 인공진피는 강도와 부피의 일정성이 향상돼 안구함몰 교정술에 매우 적합한 재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HK이노엔, 업그레이드 '컨디션 스틱' 선택

아르기닌·비타민B 함유 제품

HK이노엔(HK inno.N)이 숙취해소제 컨디션 스틱의 출시 1주년을 맞이해 '아르기닌'과 '비타민B군'을 함유한 업그레이드 제품을 선보였다.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충전과 활력 증진까지 챙긴다는 전략이다.

컨디션 스틱은 음주 전후에 물 없이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젤리 제형의 스틱형 숙취해소제로 맛과 휴대성이 특징이다. 작년 3월 출시되어 1년 동안 약 1800만포 이상 팔리면서 주요 타깃층인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HK이노엔은 컨디션 스틱의 출시 1주년을 맞이해 에너지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르기닌과



비타민B군을 새롭게 추가한 제품을 내놨다. 기존 컨디션 스틱에 함유된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새싹보리추출분말, 밀크씨슬추출분말, 타우린 외에도 아르기닌, 비타민B군이 추가됐다.

HK이노엔컨디션 브랜드매니저는 "최근 음주 문화가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컨디션 스틱이 '센스 있는 술자리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며, "즐거워 술자리를 만들어주는 비음료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컨디션 스틱의 포지셔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꽃구경 오세요”... 효성, 안양공장 진달래축제 재개
 효성 안양공장이 다시 진달래 축제를 연다. 효성은 다음달 1일 효성 안양공장 진달래동산과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효성 진달래 축제는 꽃구경과 함께 캐리커처와 요술공연, 풍물패 공연 등 볼거리와 김치전과 순대 등 먹거리도 마련된다. /효성



CJ제일제당-진천군, ESG 협력모델 구축 나서
 CJ제일제당이 충북 진천군과 손을 잡고 지속가능경영(ESG)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양측은 ▲포괄적 ESG 협력관계 구축 ▲탄소 중립 실천 ▲자원 순환 경제 실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업무협약식 후 김근영(오른쪽 여섯번째) CJ제일제당 식품생산지원실장과 송기섭(왼쪽 여섯번째) 진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현대건설-KAI, K-방산 해외시장 진출 지원 MOU
 현대건설이 K-방산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현대건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항공분야 방위산업과 건설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오른쪽)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협약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호반그룹 임직원, ‘학습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응원한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시단법인 ‘함께하는 한솔’과 ‘학습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습키트는 구로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BBQ 올리버스, 쪽방촌에 ‘사랑의 식사키트’ 전해
 치킨 프랜차이즈 체너시스BBQ 그룹의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Olive Us)’ 2기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창신동 쪽방촌 70가구에 BBQ 제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식사 키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랑의 식사 키트’는 한끼 도시락, 닭가슴살 새우볶음밥, 소시지 컵밥으로 구성되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체너시스BBQ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23년 장학생 모집

국내 최고수준 장학 혜택... 미래 이끌 차세대 인재 육성

2011년부터 900명에 500억 지원 미래산업 등 3개 분야 110명 선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재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23년 현대차 정몽구 스텔라십’ 장학생 11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산업·사회통합 분야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문화예술 분야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2011년부터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고등, 학부, 석박사 장학생 900여명에게 500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인재에 투자한다’는 재단 설립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 육성



현대차 정몽구재단 스텔라십 장학생 모집 포스터

철학을 반영하여, ‘현대차 정몽구 스텔라십’으로 장학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현대차 정몽구 스텔라십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 및 학습

지원비(학기별 180만원~360만원) 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 참가 및 해외진출 장학금, 장학생 펠로십 프로그램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현대차 정몽구 스텔라십 장학생 모집 분야는 ▲미래산업 ▲문화예술 ▲사회통합이다.

미래산업은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후기술 및 에너지·지능정보기술·바이오헬스관련 전공이 대상이다. 올해는 ‘기후기술’ 분야가 추가되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대응을 위한 미래 인재를 선발한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헬스 등 미래산업에 대응하고자 지능정보기술,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를 지속 선발한다.

문화예술은 클래식, 국악, 무용을

전공하는 중고생, 휴스쿨링, 학부생이 대상이다. 지원자 대상으로 오디션을 시행해 선발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국제 콩쿠르 참가 장학금, 국내 최고 교수진과 함께하는 온드림 앙상블 연주 등 장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사회통합은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 신설된 분야로, 학부 졸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 학습지원비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 참가 장학금, 장학생 펠로십 프로그램 등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연세대, 배터리소재 석·박사 양성

‘e-Battery Track’ 협약 체결 김준형 사장 “우수 인력 확보”

포스코퓨처엠은 27일 연세대와 ‘e-Battery Track’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제1공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과 연세대 명예인 공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올 하반기부터 연세대에 배터리소재 석·박사 과정 ‘e-Battery Track’을 운영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위 과정 중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공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오른쪽)과 연세대 명예인 공대학장이 27일 배터리소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e-Battery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활동을 실시하고,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이 과정

졸업생은 포스코퓨처엠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으로 채용한다.

포스코퓨처엠이 인재 확보에 나선 것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이 매년 30% 수준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e-Battery Track에 선발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코오롱인더 ISCC PLUS 인증 획득

코오롱인더는 석유수지 3개 제품으로 국내 최초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CC PLUS 인증은 탄소저감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국제 공인 지표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원료 및 소재를 사용했을 때 부여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세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인증제도 중의 하나로 꼽힌다.

코오롱인더는 ▲C5 석유수지 ▲C9 석유수지 ▲수소첨가 석유수지 등 3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석유수지 전 제품이다. 산업용 접착제와 위생재용 접착제, 타이어 첨가제에 주로 쓰인다. /김재용 기자 juk@

중소업체, 튀르키예 성금 등 국내외서 온정 손길 이어가

중소기업계가 나라 안팎에서 ‘선행’을 펼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탠 결과 약 6억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이 모여 이를 튀르키예측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이구산업(손인국 회장) ▲

이브자리(고준홍·윤종웅 대표) ▲우신포그먼트(장성숙 대표) ▲서린 바이오사이언스(황을문 회장) ▲시공테크(박기석 회장) ▲강릉초당두부(최선운 회장) ▲지브이에이자산운용(박지홍 대표)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임경준 이사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유동윤 이사장) 등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200여곳이 참여했다.

인천의 물류창고에 모인 구호물

품은 현지로 보낼 예정이며 성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아울러 중기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 연합봉사단 30여명은 지난 2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해명보육원을 찾아 ‘봄맞이 대운동회’를 갖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 걸링, 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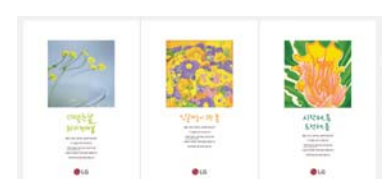
엑사원으로 전하는 봄날... LG, ‘올해의 광고상’ 수상

신문광고 3편, 인쇄부문 대상

LG 초거대 AI 엑사원이 신문 광고 이미지로 큰 상을 받았다.

LG는 24일 한국광고학회 주관 ‘올해의 광고상’에서 신문광고 3편으로 인쇄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의 광고상은 광고 분야 전문



LG 엑사원이 만든 광고

교수들이 수상작을 직접 심사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행사다. 독창성과 적합성,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한다.

LG가 상을 받은 신문 광고는 엑사원이 ‘재깍이 움트는 봄’이라는 문구로 만든 이미지로 제작한 3편이다. ▲따뜻한 봄, AI가 전해 봄 ▲인공지능이 그린 봄 ▲시작해, 봄/도전해, 봄’ 등으로, 창의성이 필요한 광고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용 기자

인사

- ◆한국신문협회 ◇승진 △사무총장 정우현
- ◆대신증권 ◇상무 신규선임 △영업부장 박성희 ◇이사대우 △홍보부부장 윤태림 ◇상무 전보 △동부WM부부장 김봉진 △고객자산부부장 최대경
- ◆지오엘리먼트 ◇상무 승진 △정환석
- ◆지오엔위즈 ◇대표이사 취임 △김정민

부음

- ▲박상진씨 별세, 김달일씨 남편상, 박남희·송현·종현(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대표)·혜수씨 부친상 = 27일 대구시 북구 동호동 대구시민전문장례식장 VIP 301호,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53-324-4444
- ▲이제명(한화이글스 운영팀 과장)씨 조모상=27일, 빈소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42-522-4494
- ▲구영직씨 별세, 구대식(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씨 부친상 = 27일 오전 7시, 동군산병원 장례예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063-441-4444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언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나가는 소리... 강 건너 불구경하나



한용수의
돌직구

문이과 공통 수능 도입이 3년차에 이르면서 문과생들의 이과수학(미적분, 기하) 쓸림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과수학을 선택한 문과생이 5.2%였는데, 2년차인 2023학년도엔 7.1%로 상승했다. 종로학원이 올해 수험생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문과 학생 중 이과수학 선택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15.9%로 나타났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실제 수능에서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이 소폭 감소하는 걸 감안해도 내년 대학 신입생을 뽑는 올해 수능에서 10명 중 1명꼴로 이과수학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과생들의 이과수학 침공은 입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를 폐지하고 문이과 통합수능을 치르는데, 수학의 경우 총 30문항 중 22문항은 공통 문항이지만, 나머지 8문항은 확률과 통계(문과수능), 미적분 기하(이과수능)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응시집단의 성적 분포에 따라 표준점수를 보정하는데, 이과수능 선택자들의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점수 산출방식 상 똑같은 원점수를 받고도 표준점수에서 앞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수학 선택이 늘수록 문과수능을 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는 더 낮아지면서 이과수학 선택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하위권 문과생의 이과수학 선택이 많아지면, 문과수능 전체 평균점수를 높이며 표준점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어느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들쭉 날쭉해지면서 입시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예전엔 경쟁률을 보며 입시원서를 넣기 직전 눈치자전을 벌였지만, 이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 눈치를 보가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이과 통합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입시에서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심화되면, 자연스레 학원가의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길이 갈수밖에 없다.

학원 수요가 높아지면 학원비는 오르게 마련이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자녀 나이에 숫자 '0'을 붙이면 학원비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자녀 나이가 14살이면 학원비로 만 월 14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이는 기본요금 정도다. 특목고를 보내려는 학부모 지갑에선 남편 월급이 통째로 학원비로 빠져 나간다. 특히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며 학력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학원 수업은 대부분 입시를 겨냥한 선행학습 위주다. 중학교 2학년이 수능 이과수학인 미적분을 배운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기록되는 내신을 대비해선 1~2주정도 대비하는 수준이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며 공교육 무력화가 심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관련 대책이 나온바가 없다. 강 건너 불구경이 따로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은 이른바 변수 3종 세트가 추가된다. 또 한차례 교육과정도 바뀔 예정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바뀌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평가 방식 자체가 새로 도입된다. 공교육과 대입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는 시기에 사교육 유발을 막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이중 가격’ 꿈수에 배달앱 ‘손절’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부터 꾸준히 이용해온 배달앱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배달료 때문이다. 최소 얼마 이상 주문해야 배달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기본 3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가격이 더 붙으니 음식 값보다 배달료 부담에 주문을 그만 두게 되는 일이 최근들어 잦아졌다.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중 가격’도 문제다. 심지어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 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으로 최대 4500원의 가격 차이가났다. 이 중 13개 음식점(65%)은 배달 앱 내 가격이 매장보다 더 높은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기사도 햄버거를 주문하다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르게 적혀 있어 포장해온 경험이 있다.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른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중 가격의 주된 원인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다. 음식점 점주들은 배달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때문에 배달 앱 내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중 가

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민간 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경우 49.4%(384명)가 음식의 가격 및 배달비를 인상했다. 광고비가 인상된 경우에는 45.8%(346명)가 인상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음식 가격,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대다수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가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3월 28일 (음 2월 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도록, 48년생 자식을 과보호 할수록 무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60년생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2년생 미래의 사랑에 목숨 걸겠다는가, 8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 37년생 고행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는 더 빠르다는데, 49년생 말려놓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가져가는 일진, 61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73년생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니 가만히, 85년생 이직이 만수무강이 아닐 것이다.
- 38년생 원숭이띠와 말다툼하지 말도록, 50년생 평평 쓰다기는 조만간 고립무원 신세, 62년생 친구가 찾아와 저녁을 같이한다, 74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렸다, 86년생 언제 저축 하나고 묻지 말고 오늘 적금을 들도록.
- 39년생 평생약속을 잘 지켜서 오늘을 일구었다, 51년생 해지기전에 집안 거미줄을 걷어내고 말끔히, 63년생 돈이 없으면 외로운 신세가 되는 것, 75년생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다, 87년생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하니 계획을 세우자.
- 40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5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백화점은 다음으로, 64년생 학벌보다는 전문성으로 지켜나가자, 7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88년생 연금은 꼭 들어서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도록.
- 41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 말고 지금 현실에 노력할 것, 53년생 경제적 자립도를 위해 기술을 배우자, 65년생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 77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9년생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축부터 시작.
- 42년생 맞서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으니 한발양보를, 54년생 고생 끝에 자식이 공시시험에 합격, 66년생 과다한 지출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78년생 냉장고를 바꾸니 집안 분위기도 환해진다, 90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 43년생 길게 보면서 자녀에게 투자를 해야 불행을 면한다, 55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노력을 해라, 67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에 주의, 79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91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 44년생 주다보면 자녀가 본인에게 부채가 될 수도 있음이다, 56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 68년생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말자, 80년생 남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 92년생 현재직장이 싫다면 다른데 가도 마친가지일 것.
- 45년생 비가 오나 눈이오나 집은 지켜야만, 57년생 영업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인가 정확히 계산해보자, 69년생 사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라, 81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이, 93년생 지금부터 연금을 챙기고 꾸준한 저축을 시작.
- 46년생 노후파산은 법적인용어이나 내게도 현실일수가, 58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70년생 내가 참으면 끝날 말다툼이니 참는 것이, 82년생 물가상승으로 시장바꾸기가 가벼워진다, 94년생 자주 이직을 하면 떡고물이 몽쳐질 날이 있겠는가.
- 47년생 자신의 소신을 행동으로 바꾸어야, 59년생 투자는 허무하게 돈을 사라지니 주의, 71년생 자산형성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83년생 40세가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끌리지 않는다는 불혹, 95년생 효를 실천하면서도 저축은 늘려야할 것.

김상회의四季 귀상



임신중절(中絶)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이 일찍이 임신중절의 경험이 있는지 태어난 애기의 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설古說(古說)에 의하면 장남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귀는 곽廓(廓)이 나와 있지 않다. 곧 곽이 돌출한 귀의 남성은 장남이 아니고 이남(二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가 되는 남자에게는 곽이 돌출한 사람이 많다. 만약 여성으로 미혼 시절에 몸을 움직여 그 결과를 임신중절이라는 형태로 처리해 버린 일이 있다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낳은 남아의 귀가 장남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혼 전에 두번 중절했다면 결혼하여 남자를 낳아도 모체에서 출생하는 그 애기는 장남이 아니라 삼남인 셈이다. 실제로 삼남으로서의 귀와 인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애기 귀의 곽은 돌출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극단하게 돌출해있지 않더라도 곽이 팽팽히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중절한 남아였다고 가정하고 하는 말이지만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번이나 두번 인공유산 했을 때에도 이 현상은 이남 또는 삼남의 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상한 것은 남편과 다른 여성의 사이에 몰래 낳은 남아가 있고 분처에게서 초산의 애기가 출생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에게는 이남이므로 그 애기는 이남의 귀를 갖고 태어난다. 관상의 대가가되면 그 애기를 한번 보기만 하면 진정한 장남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한다. 귀상(耳相)인상(人相)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여아의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장녀의 귀상은 없다. 또 중절애기가 여아뿐이었다면 몇 번 중절해도 최초의 남아는 장남의 귀를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귀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관상술이 있음을 안다면 예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각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제품 사무라이스토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3		2		4			
			1					3
7		8			6		1	
		4						3
9								4
	8					7		
		9	5			3		1
2				1				
		1	4					2

	6							
	3			9		7	2	5
9				2	7			
	5	8						
		9					8	
							4	5
			9	4				3
3	8	5	1					9
								7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 2017년3월09일 제126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의회 “전통시장·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관리해야”

전통시장 일회성·분절적 이벤트 많아 시즌·지역별 특색 반영해 추진해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도 이익 감소 개선방안 중심 성과 분석 필요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7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15건, 기타(자료제출 등) 21건을 접수해 49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21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사업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검증된 효과가 없다며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시에 지시했다.

시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 만족도 조사 용역’을 벌였다. 용역 결과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98.8%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고, 상인 인지도는 82.6%로 직전 연

도와 비교해 7.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가 ‘전통시장 문전성시 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장철 전통시장 문전성시 행사 만족도는 80%로 높았고, 이벤트 재참여 의향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통시장 행사를 일회성 혹은 분절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명절, 김장철처럼 시즌별, 지역별(용문시장 맥주 축제, 석촌시장 야시장, 포방터시장 - 토요일엔 포방터) 특색을 반영한 지속적인 이벤트 추진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대비 너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중기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6.8%로 전국 평균

25.7%보다 8.9%포인트 낮았다.

시는 “올 1월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부담 비율을 종전 40%에서 20%로 조정해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구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독려 공문을 전달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 수도 늘고 있으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악화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대응 부족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비교 분석 위주에서 개선 방안 중심으로 성과 분석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월릉~대치 10분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2.2km 지하화 사업 하반기 착공 동남~동북권 통행시간 20분 단축 민자사업·재정사업 구간 나눠 건설



사업비가 투입된다. 통행료는 2500원(성수 톨게이트 1600원, 군자 톨게이트 9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신

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만들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km의 지하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예산을 투입하는 영동대로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지난달 시공 사전성정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가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성수IT지구 기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IT·R&D 산업 대상 감면 혜택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 산업 관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성수IT지구(성수동 성수2가 3동 일대)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정보통신산업)와

연구개발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10년 지정됐다.

성수IT지구 내 권장 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용자가 지원된다. /김현정 기자

‘그레이트 한강’ 구체화… 여가공간 마련

서울시가 한강 수변 공간을 휴식·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구체적 공간기획과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한강 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 마련’ 용역 사전규

격을 28일 공개하고,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며, 총 7억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본 용역을 통해 시는 한강변의 주요 사업 부지와 한강 전 구간의 여가 기능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청소년·노년층 맞춤형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방문, 비대면 무료 교육

경기도가 청소년 금융기초지식, 노년층 금융사기예방법 등 대상자 맞춤형 금융·신용 교육을 실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합리적 소비, 저축,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예방법 등 교육대상자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용적 맞춤

형 교육과정이다. 금융 전문 강사가 방문 또는 비대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1곳이던 교육기관을 올해 서민금융진흥원까지 2곳으로 확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 대상, ‘꿈이머니’라는 게임을 활용한 금융기초지식·진로탐색 ▲청년 대상,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금융월드를 활용한 경제적 자립지원 ▲노년층 대상, 게임북을 활용

한 금융사기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교육동영상·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형 교구재를 지원해 교육하며, 지역아동센터 대상 용돈기입장 쓰는 법·노년층 대상 증여와 상속제도·디지털 금융교육 등을 진행한다.

교육기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도민의 금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3월 28일(화) 음력: 2월 7일

수도권 날씨 4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6:25, 해질: 18:51

지역별 날씨: 연천 -1/16, 동두천 1/17, 가평 1/17, 양평 1/18, 용인 5/15, 평택 0/17, 인천 5/13, 수원 5/15, 파주 0/16, 서울 4/16, 백령도 4/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백악관 “러 벨라루스로 핵무기 이전 징후 없어”
▲미국 36위 은행 퍼스트 시티즌스, SV B 인수 임박 /사진 뉴시스

▲日증시, 서방 금융위기 우려 속 반등 마감…닛케이지수 0.33% ↑
▲푸틴 “중국은 군사 동맹 아닌 기술 협력 관계”



▲IAEA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방문길 오른다
▲여성 교육 금지한 탈레반 “여성 교육 재개” 또 주장 /사진 뉴시스



[라이프] hy 펄택공장 가보니
아쿠르트 생산과정
한눈에
L1



Life

[바이오] CJ바이오사이언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박사
L2



재능기부로 음성도서 만들고, 폐기물로 도서관 짓고 “미래세대 위한 희망을 팝니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롯데홈쇼핑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다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의 전문성과 상품을 심분 살리는가 하면,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봉사를 이어가는 등 해가 지날수록 활동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ESG 활동은 기업이 가진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예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룬 성과 등 여러 주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7일 롯데홈쇼핑은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 제작한 음성도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한 음성도서 25권은 쇼호스트 등 방송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맹학교 뿐 아니라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시각장애 아동의 문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홈쇼핑의 전문 방송 인력을 활용한 음성도서 제작 사업 ‘드림보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 아동들이 학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도서 전달은 한국장애인재단과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드림보이스 사업의 일환이다. 시각장애 아동들이 폭넓은 학습과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홈쇼핑 기업의 특성을 활용해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165권의 도서를 녹음, 음성도서 4400세트 제작했으며, 복지시설 1700여 곳에 기증했다.

설과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대표적인 활동 중에는 ‘희망수라간’이 있다. 롯데홈쇼핑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을 거점으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음식료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번 설에는 방한용품과 명절 간편식을 꾸려 전달했으며, 지난해 김장철에는 김장김치 600포기를 지원했다. 영등포 뿐 아니라 태풍 ‘힌남노’가 불어닥친 9월에는 수재민 300가구에 갈비탕과 잡채 등으로 구성된 ‘차려상 꾸러미’를 전달했다.

친환경 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을 동시에 해낸 성과도 있



롯데홈쇼핑은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 도서를 한국장애인재단에 전달했다. (앞줄왼쪽두번째) 한국장애인재단 김지우 사무총장, (앞줄왼쪽네번째부터) 국립서울맹학교 조양숙 교장, 롯데홈쇼핑 이동규 커뮤니케이션 부문장.

기업 특수성 활용한 ESG 활동 펼쳐 쇼호스트 등 방송전문가 재능기부로 시각장애 아동 위한 ‘음성도서’ 전달

소외아동에 친환경 학습공간 제공 업사이클링 자재 활용 독서공간 개관 도심 속 녹지 ‘숨:편한 포레스트’ 조성

다. 롯데홈쇼핑은 2013년부터 문화 소외지역 아동들을 위해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다양한 폐기물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도서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 경북 구미에 의류 폐기물을 재가공해 제작한 가구로 건립했고, 10월에는 서울 남산도서관 옥외공간에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독서공간 ‘남산하늘뜰’을 조성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 남산도서관 남산하늘뜰 조성은 특별히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환경공단과 힘을 합쳤다.

서울 최초의 공립 공공도서관인 남산도서관의 개관 100

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친환경 독서 공간에 6.1 지방 선거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현수막을 활용했다. 폐현수막 2540장, 폐의류 2만2860벌을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가공한 섬유패널 4.25톤으로 조형물, 벤치, 평상, 의자 등을 제작해 약 1.3톤의 탄소배출량 절감시켰다. 빛, 열, 강수에 강하고, 섬유의 보온, 충격흡수, 방음 기능까지 유지한 패널을 사용해 자재 품질도 우수하다. 공공 도서관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친환경을 입혔다.

녹지 조성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숨:편한 포레스트’는 탄소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 도심 내 녹지를 조성한다. 2020년 환경부 및 환경재단과 ‘미세먼지 취약계층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에 나무를 식재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4월 여의도생강생태공원에 3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 5호 도심 숲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공원까지 완성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내 ESG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60명 정원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1시간 만에 100여명의 지원자가 모였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헌혈증을 기부했다. 이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내에서 친환경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도입해 방송 시연 등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미생물 발효를 통해 처리해 폐기물 발생을 줄였다. 냉난방 온도 조절 및 친환경 LED 조명 도입, 소등 시간 단축 등 사내 전기 사용도 절감했다. 또한 임직원들도 다회용컵 사용, 출퇴근시 계단 이용 등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을 통해 ESG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해 10월 서울 남산도서관에 조성한 남산하늘뜰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폐현수막, 폐의류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해 친환경 독서공간을 꾸렸다.



지난해 9월 서울 송파나루공원에 녹지공간 ‘숨:편한 포레스트’ 5호를 완공했다. 완공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화식물 300개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롯데홈쇼핑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3년 연속 전경기 출전’ KT 배정대, 손 등 골절로 이탈
▲콜롬비아전 다친 김진수, 허리 골절 증상...2개월 결장 /사진 뉴시스

▲흥국생명 정규리그 홈관중 8만명... ‘최다 관중’ 코앞
▲‘세계선수권 첫 남녀 동반 은메달’ 차준환·이해인 금의환향



▲“과몰입 막아야” 경륜·경정,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부다페스트 월드컵 단체전 우승 /사진 뉴시스